

삼성 “승엽 환영…속내는 복잡”

이승엽 국내복귀와 삼성의 입장

계약기간 1년 남기고 오릭스에 퇴단 의사 전달
삼성 “우리선수” 인식 불구 KS 눈앞이라 곤혹
거액 몸값·보상금만 28억…타구단 이적 걸림돌

이승엽(35·오릭스)이 영육으로 점철된 8년간의 일본생활을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한다. 일 소프트뱅크와의 정규 시즌 최종전을 치른 18일 오릭스에 남은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튿날 오릭스(나카무라 준 편성과정)는 “한국의 국민타자인 만큼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부친 이춘광 씨도 19일 “승엽이가 일본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한 뒤 “외국인선수로 올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책임감을 느껴왔고, 5월에 태어난 둘째 아들의 양육문제로도 고민해왔다”며 복귀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2003년을 끝으로 일본에 진출한 이승엽이 국내 복귀 절차를 밟게 되면 일단 원 소속구단 삼성으로의 유턴이 유력시된다. 삼성도 원칙적으로는 이승엽의 복귀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삼성, “한국시리즈가 우선!”

삼성에는 두 가지 기류가 감돈다. ‘원래 우리 선수’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던 스타이기에 삼성 복귀를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면서도, 이승엽 측과 사전 교감이 없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또 선수단과 프런트 모두 한국시리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도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삼성 송삼봉 단장은 19일 “폭탄(이승엽의 복귀 선언)이 터졌다”며 말문을 연 뒤 “지난 겨울(1월) 승엽이가 경산(볼파크)에서 개인훈련을 할 때 (국내 복귀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오릭스와 2년 계약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오릭스와 계약이 끝난 다음(2012년 말)에나 논의할 수 있을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적(한국시리즈 직전)으로도, 모양새(삼성과의 직·간접적 접촉 없이 언론 보도로 복귀 의사를 전달한 형태)로도 조금 곤란하다. 한국시리즈를 끝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시즌 초 일찌감치 이승엽의 영입을 강하게 희망했던 류중일 감독도 소식을 접하고는 “삼성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듯 “구단과 상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내 복귀는 어떻게?

이승엽은 단일시즌 최다홈런 아시아신기록을 세운 2003시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채로 일본 지바 롯데로 건너갔다. 따라서 국내 복귀시 FA 신분으로 NC 다이노스를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유턴하는 FA라 원 소속구단 삼성에는 우선협상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승엽이 타 구단으로 이적하면 삼성에는 FA 보상권이 생긴다. 즉, 이승엽의 2003년 연봉 6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금만 28억 3500만원을 평가거나 보상금 18억9000만원에 선수 1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보상 규모가 막대한 까닭에 이승엽을 영입할 수 있는 구단은 삼성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승엽의 몸값(계약금+연봉)은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아시아신기록을 세우고 일본으로 무대를 옮긴지 8년, 한국의 국민타자는 영육으로 점철된 일본프로야구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승엽은 오릭스와 내년 시즌 잔여계약을 포기하고 국내복귀를 선언했다. 스포츠동아 DB

결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부터 따지면, 이승엽이 오릭스에서 보장받은 인센티브 포함 1억5000만엔(약 22억엔)의 연봉은 환율차를 고려해도 엄청난 금액이다. ‘예우’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삼성으로서도 부담스

러울 수 있다. 삼성 외의 구단은 보상금까지 더해 100억엔을 웃도는 거액을 이승엽 영입에 투자해야 한다. 더욱이 이승엽은 내년이면 만 36세의 노장이 된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2006년 거인 4번 절정기…2007년 엄지 수술 후 내리막

■일본 프로야구 환희와 눈물의 8년

‘국민타자’ 이승엽(35)의 일본프로야구 생활은 파란만장했다. 눈물 속에 방황하기도 했고, 박찬 환희의 순간을 만끽하기도 했다. 부와 명성을 얻기도 했지만 질타와 비난에 시달린 적도 있다.

2004년 지바 롯데에 진출한 그는 첫해 타율 0.240, 14홈런, 50타점에 그쳤다. 생애 처음 2군생활도 맛봤다. 그러나 이듬해 30홈런을 터뜨리며 거포 본색을 드러냈다. 특히 일본 본시리즈에서 맹활약하면서 일본 최고 명문팀 요미우리의 러브콜을 받았다. 2006년부터 거인군단의 4번타자로 자리

잡은 그는 타율 0.323, 41홈런, 108타점을 기록하며 일본에서도 최고타자로 우뚝 섰다. 그러자 요미우리는 2007년부터 4년간 30억엔을 안기며 그를 붙잡았다. 호사다마일까. 부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승엽을 엄습했다. 2006년 말 무릎수술 후 30홈런을 기록했지만 2007시즌 후 왼손 엄지 수술을 받으면서 정교함을 잃고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8년 8홈런, 2009년 15홈런에 불과했다. 2010시즌 타율 0.163과 5홈런으로 생애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자 요미우리는 재계약 포기를 통보했다. 이승엽은 오릭스와 2년계약을 하면서 절치부심했지만 올시즌에도 타율 0.201, 15홈런, 51타점에 그치자 계약기간 1년을 남기고 일본생활을 청산

연도	소속팀	경기	타율	타수	안타	출런	타점	득점
2004	지바롯데	100	0.240	333	80	14	50	50
2005	지바롯데	117	0.260	408	106	30	82	64
2006	요미우리	143	0.323	524	169	41	108	101
2007	요미우리	137	0.274	541	148	30	74	84
2008	요미우리	45	0.248	153	38	8	27	21
2009	요미우리	77	0.229	223	51	16	36	33
2010	요미우리	56	0.163	92	15	5	11	13
2011	오릭스	122	0.201	394	79	15	51	28
통산		797	0.257	2668	686	159	439	394

하기로 결심했다. 통산 797경기에 출장해 159홈런(타율 0.257, 439타점)의 족적을 남긴 것으로 일본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박찬호, 일본내 이적·한국무대 복귀 ‘산 넘어 산’

■박찬호의 미래는?

높은 몸값·기대이하 성적…타구단 이적 불투명
국내 복귀면 한화 우선지명·타구단 양보도 필요

일본프로야구 오릭스가 박찬호(사진)와도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승엽과 달리 박찬호의 귀향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10일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로 파견된 박찬호는 20일 오사카로 돌아온다. 오릭스는 박찬호가 올시즌 1승 5패 방



어울 4.29로 부진했지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투수를 포스트시즌에 조커로 활용할 수 있어 교육리그로 보냈다. 그러나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되자 박찬호를 다시 오사카로 불러들여 내년 재계약 등 거취에 대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릭스 나카무라 준 편성부 과장은

19일 “더 이상 교육리그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일 오사카로 돌아온다. 박찬호는 21일 단장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재계약 등 여러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릭스가 올해 220만 달러의 높은 연봉을 받고 기대 이하의 성적을 올린 박찬호와 재계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 일본프로야구 관계자는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최다승을 거뒀고 한국의 대투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봉을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있고 올해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오릭스 뿐 아니라 일본 다른 구단도 박찬호와 계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국내프로야구에서 뛸 적이 없는 박찬호는 FA자격을 갖고 있는 이승엽과 달리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연고권을 갖고 있는 한화의 드래프트 1라운드 우선지명, 혹은 타구단의 전폭적인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hkh

‘화염성중’ 불자 강민호 PO 각오

■순간포착

누구의 헬멧일까요? 3차전을 앞두고 3루측 롯데 덕아웃 뒤쪽 복도를 걷다 우연히 헬멧을 뒤집은 놓은 것이 보여 눈길을 끌더니, ‘화염성중’이라고 씌어있더군요. 화염성중(華嚴聖衆)이란 ‘대방광불화엄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신중을 뜻하는 말인데, 신중은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해 불법을 옹호하며 불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한 신을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눈치 채셨다고요? 맞습니다. 왼쪽에 희미하게 ‘47’이라고 등번호가 적혀 있듯, 강민호의 헬멧입니다. 강민호는 시간 날 때 종종 절을 찾아 마음을 가다듬곤 합니다. PO에서의 각오가 느껴지는 헬멧입니다.

문학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PO 3차전 이모저모



감독의 현장재현, 3차전 6회말 SK 최정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자 롯데 양승호 감독(왼쪽 3번째)이 김병주 주심(오른쪽 끝)에게 의도적으로 공에 팔꿈치 보호대를 갖다 뒀다고 항의하고 있다.

문학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6회말 SK 최정이 볼카운트 1-1에서 몸에 맞는 볼을 얻는 과정에서 롯데 투수 사도스키가 강하게 어필하고, 양승호 감독까지 그라운드에서 나와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정은 왼쪽 팔꿈치 보호대쪽에 볼을 맞았고, 롯데 측은 타자가 볼에 맞기 위해 의도적으로 갖다 뒀다고 주장했으나 김병주 구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 양승호 감독은 3차전에서 1·2차전과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내놓아 타선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반면 2차전까지 똑같은 라인업을 꾸렸던 SK 이만수 감독대행은 2차전까지 4번으로 선발 출장시켰던 지명타자 이호준을 빼고 최동수를 투입하며 대신 6번으로 배치했다. 5번 박정권, 6번 안치용을 한 계단씩 올려 각각 4·5번을 맡겼다.

■PS기록실

- PS 3연속경기 및 PO 11연속경기 매진
- 롯데 전주원 PS 8연속경기 안타=2010년 9월 29일 준PO 1차전(잠실 두산전) 이후
- SK 박정권 PS 8연속경기 안타=2009년 10월 7일 PO 1차전(문학 두산전) 이후
- SK 김강민 PS 6연속경기 안타=2009년 10월 10일 PO 3차전(잠실 두산전) 이후
- SK 정근우 PS 12연속경기안타 끝
- SK 최정 PS 1경기 최다사구(2타) 및 7연속경기 안타 끝

김기태 LG 신임감독, 내일 선수단 상견례

LG는 21일 구리 LG챔피언스파크에서 김기태 감독과 선수단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마무리 훈련에 돌입한다. 21일부터 1차로 구리 LG챔피언스파크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11월 6일~30일에는 진주 연암공업대 야구장과 구리로 나눠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에 참가 중인 25명의 선수단은 11월 2일 귀국해 마무리 훈련에 합류한다.

조범현 전감독 작별인사…선동열 KIA 감독 내일 취임

KIA 선동열 신임 감독 취임식이 2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내방동 KIA자동차 광주1공장 연구소 강당에서 열린다. 이삼용 사장과 김조호 단장 및 구단 직원, 선수단 전원이 참석한다. 18일 퇴임한 조범현 전 감독은 19일 광주구장에서 전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SK 장순일 마케팅그룹장 부친상

SK 장순일 마케팅그룹장이 18일 부친상을 당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21일 오전 7시. (02) 3410-6914